2023 년 3 월 21 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미 증시, UBS 의 CS 인수 합의 소식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0 일(월) 미국 증시는 UBS 가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크레디트스위스(-52.9%)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상승(다우 +1.2%, S&P500 +0.89%, 나스닥 +0.39%).

UBS 가 CS 를 주당 0.76 스위스프랑, 총액은 32 억 3000 만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 CS 는 "이번 인수에는 통상적인 거래 절차가 아직남아있지만,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말까지 인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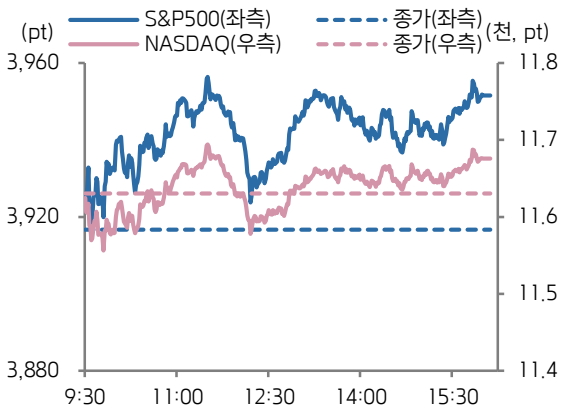
SNB 는 "연방 의회의 긴급 조례에 의거해 CS 와 UBS 는 최대 1000 억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 대출을 우선채권자로 받을 수 있고, 연방 부도 보증으로 최대 1000 억스위스프랑의 유동성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 파월 미 연준 의장 역시 옐런 재무부 장관과의 공동 성명에서 해당 결정에 찬성하며 "미국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은 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은 회복력이 있다"고 언급.

미 연준은 캐나다·영국·일본·유로존·스위스 등 5 개국 중앙은행과 달러화 스와프협정 상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 달러 스와프에 따른 달러 공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최소 다음 달 말까지 "7 일 만기물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늘릴 것"이라고 밝힘. 해당 보도 이후 달러는 낙폭 확대.

퍼스트 리퍼블릭(-47.1%) 대형 은행 11 곳의 긴급 지원에도 불구, 최근 10 일간 700 억 달러(91 조 6000 억원)의 예금이 유출되며 주가는 폭락. 또한 S&P 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등급을 B+로 추가 강등하며 불안심리는 확대. 대형 은행 CEO 들의 추가 대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FRC 에 대해 직접 자본 투자를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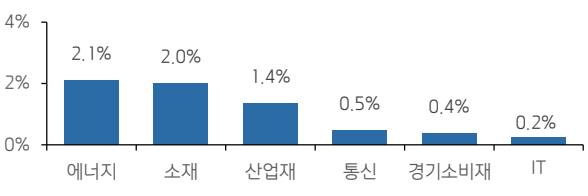
전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 에너지(+2.1%), 소재(+2%), 산업재(+1.4%)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IT(+0.2%), 경기소비재(+0.4%), 통신(+0.5%)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FRC 외에 자이언스 뱅코프(0.8%), 키코프(1.21%) 등 다른 지방은행들은 반등에 성공.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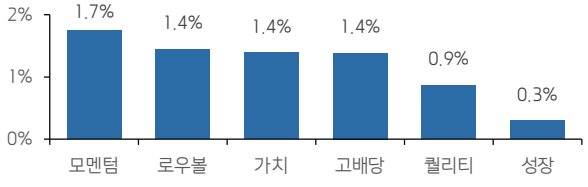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379.20	-0.69%	USD/KRW	1,310.92	+0.56%
코스피 200	309.49	-0.83%	달러 지수	103.31	-0.39%
코스닥	802.20	+0.6%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175.94	+0.46%	USD/CNH	6.87	+0.01%
S&P500	3,951.57	+0.89%	USD/JPY	131.33	+0.01%
NASDAQ	11,675.54	+0.39%	**채권시장**		
다우	32,244.58	+1.2%	국고채 3 년	3.235	-16.7bp
VIX	24.15	-5.33%	국고채 10 년	3.290	-11.5bp
러셀 2000	1,744.99	+1.11%	미국 국채 2 년	3.976	+13.9bp
필라. 반도체	3,114.71	+1.01%	미국 국채 10 년	3.485	+5.6bp
다우 운송	13,764.71	-0.06%	미국 국채 30 년	3.666	+4.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19.42	+1.34%	WTI	67.64	+1.35%
MSCI 전세계 지수	620.03	+0.64%	브렌트유	73.79	+1.12%
MSCI DM 지수	2,678.29	+0.83%	금	1999.7	+0.48%
MSCI EM 지수	942.98	-0.9%	은	22.53	+0.81%
MSCI 한국 ETF	58.81	+0.82%	구리	397.55	+1.5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3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8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2.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CS 발 금융불안 진정으로 인한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 2. 고유 악재 출현에도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2 차전지주 수급 변화 3. 중국 외자 판호 발급에 따른 국내 게임주들의 투자심리 변화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퍼스트리퍼블릭뱅크(FRC, -47.3%), 크레딧스위스(CS, -53.0%) 등 최근 은행권 위기를 촉발한 직접적인 주체들의 주가는 폭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 UBS 가 CS 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S 의 코코본드(AT1)를 전액상각처리 했다는 점은 주주보다 채권자들의 손실 감당 우선순위를 낮게 부여했다는 뜻으로 해석됨에 따라 여타 코코본드 채권자들의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

(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권. 은행의 BIS 비율이 특정 레벨 이하로 하락할 시 채권이 주식으로 강제전환되거나 상각처리. CS 는 전체 부채 중 약 20%에 해당하는 약 173 억달러가 코코본드였으며, 금번 CS 의 상각 금액은 약 2,700 억달러 규모의 유럽 코코본드시장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

하지만 지역은행들로 구성된 은행 ETF(KRE, +1.1%), UBS(+3.3%)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반등한 데서 추론해볼 수 있듯이,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은 금번 은행권 위기의 전이 정도나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에도 수시로 은행권 위기 관련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부각될 소지는 있겠으나, 미국, EU 등 주요 감독당국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위기 대응 의지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일례로, 주말 중 중앙은행들의 통화스왑협정 강화, 유동성 및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 중인 미국 지역은행들의 인수 추진 작업(ex: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시그니처 뱅크 예금 및 대출 일부 인수) 등이 잇따른 후속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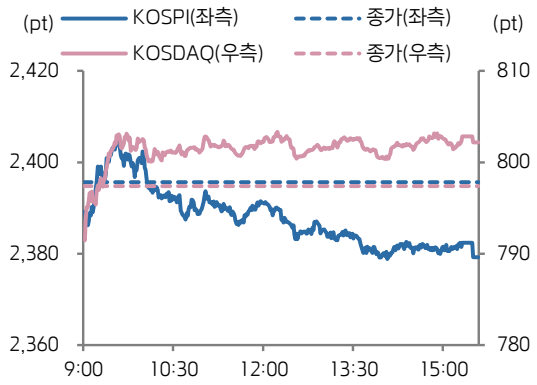
이와 연장선 상에서, 금주 예정된 초대형 이벤트인 3 월 FOMC 에서 연준은 기존의 긴축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 일부 외사 IB 들에서는 이번 은행권 위기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긴 함(CME Fed Watch 금리동결 확률 24% vs 1 개월전에는 0%).

하지만 연준이 실제로 금리 동결 시 현재의 위기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신호를 시장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긴축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초래될 소지가 있음. 결과 발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금리 동결 vs 25bp 인상 관련 논쟁으로 주가, 금리 변동성은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25bp 인상 및 점도표 또는 경제 전망 수정을 통한 덜 매파적인 미래 긴축 경로"를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FOMC 영향권 진입 속 장중 미국 및 유럽 은행권 불안에서 기인한 홍콩항셍(-2.6%), 닛케이(-1.4%) 등 아시아 증시 약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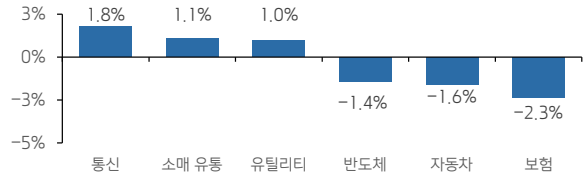
금일에도 FOMC 경계심리는 상존하겠으나, CS 발 위기 일단락, 미국 중소형 은행권 불안 완화 등 대외 호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고유 악재 출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장주인 2 차전지 관련주들이 개인 수급 쏠림 변화를 주시할 필요.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에서 블루아카이브, 쿠키런:킹덤 등 3 개월 만에 한국 포함 외국산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를 27 개 발급했다는 점은 금일 국내 게임주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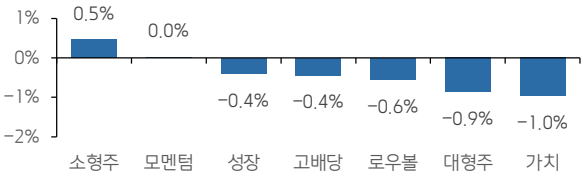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